

직원평의원 입후보자 소견서

직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직원평의원에 입후보한 기호 3번 정광국입니다.

우리 대학에 대학평의원 제도가 도입된 지도 1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심의기구에 불과한 반쪽짜리 제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직원평의원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시행 초기 대학평의원에 대한 설렘과 희망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대학평의원의 상징성만큼은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상징성의 영향력이 직원 선생님들을 대변하고 대학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발전이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직원으로서 직원평의원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건너편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그 비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강 건너편 마을까지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직원평의원에 입후보한 까닭도 그 부정적 영향이 대학을 잠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기 전에 강 건너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라고 외칠 뿐 누군가가 이 위기를 대신 헤쳐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대학발전에 일조할 기회는 이미 늦었다 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는 각오로 대학발전에 일말의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회피하기보다는 모난 돌이 있기에 정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여러 파급 효과가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대학발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올바른 정책과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직원평의원의 역할에는 직원에 대한 여러 우려스러운 정책과 결정에 견제와 조언을 함께 하라는 의도가 분명히 녹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직원평의원의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첫째, 대학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신중과 세심함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둘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해서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의하겠습니다.

셋째,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해서는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겠습니다.

넷째,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심의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직원평의원 입후보자 정 광 국